



맑은 물 공급 삶의 질 높이고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 막는다

목포시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비롯해 상·하수도 사용자 징수를 제고, 상·하수도 요금통합 납부시스템 운영, 유수율(有收率)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또 침수피해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특히 박홍률 시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로와 건축, 상·하수도, 사회복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 시민이 행복하고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상수도 사업단(단장 김치중)의 올해 주요 시책과 역점 추진사업 등을 살펴본다.

◇주요 시책=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부채 감소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추진된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6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로 현실화를 추진토록 권고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안행부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 교부금 삭감 등의 패널티를 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김득재 상수도 행정과장은 "상수도 요금이 11년간 동결돼 인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하수도 요금은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됐지만 원가대비 사용료가 낮아 적자폭이 증대되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냈다.

현재 시의 상수도 요금(2013년 기준)은 m³당 원가가 879.9원인데 비해 평균 요금은 726.8원이고, 하수도 요금은 m³당 원가가 1668원인 반면 평균 요금은 347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행부 현실화를 기준으로 상수도 90%, 하수도 60% 수준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단

목포시 상수도 시설 확충 박차

노후관 교체하고 요금 현실화

상동에 관로·저류조 설치

수질 개선 등 올 278억 투입

남약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기준 목포시의 예상 현실화율은 상수도 80.4%, 하수도는 26.8%이다.

사업단은 오는 4~5월 중 요금인상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와 목포시의회의 결의를 거쳐 9월 정례회 때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또 상·하수도 사용자 징수를 제고를 위한 조치로 장기 상습 침수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합동 징수반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현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1억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0만 원 이상 체납수용가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단은 3회 이상 납부를 독려한 뒤 행정처리를 강력 이행해 징수율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민원 접수와 요금조회 납부가 가능한 상·하수도 요금통합 납부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이어 급수체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역별 급·배수관로 정밀 탐사와 누수요인 분석 등을 위한 누수탐사 용역을 3억원을 들여 실시한다. 대상 구역은 연동, 대성동, 죽교동 등 8개 구역 114.9km로 수용가는 5940전이다.

이와 함께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도 병행된다. 사업단은 수돗물 손실 방지와 출수 불량 해소를 위해 연동 성은시계방~삼양전자 구간 등 9개 구간

2,339km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12억4200만원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수를 향상과 함께 맑은 물공급이 가능해 시민 보건 위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점 추진 사업=사업단은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침수피해 예방과 공공구역의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총 사업비 278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지대 침수 예방과 재해 방지를 위해 상동에 157억원을 들여 우수 관로 125m, 1만t 용량의 저류조 등을 설치한다. 오는 2017년 사업이 끝나면 목포 버스터미널앞 저지대 상습침수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남약 하수처리장은 오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하루 1만2000t인 하수처리 용량을 2만2000t으로 증설된다. 또 하루 3만5000t의 하수를 처리하는 북항 하수처리장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법적 방류수 수질강화에 따라 고도처리 시설이 설치된다.

이 사업은 국비 53억원을 지원받아 설계용역을 마치고 대양산단 준공후 발생하는 오·폐수와 산향동 대학산 마을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복합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목포시의 최대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내항 인근 동명동과 만호동 일대의 해수 침수방지 사업과 대반동 해수욕장 복원사업도 본격화된다. 만조시 해수역류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와 해변침식으로 해수욕장 기능을 상실한 이들 지역에 대한 사업비 111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목포시 이상호 하수과장은 "7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2017년에는 저지대의 상습침수와 환경오염 문제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KTX 개통 대비 전남 수산물 판매관 마련 시급

목포시,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내 3개층 무상제공키로

오는 4월 KTX 호남선 개통에 대비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명품 수산물을 한 곳에 모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사진) 내 3개 층 1205㎡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남 명품 수산물 전시·판매관 설치는 KTX 호남선의 종착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가 최적지"라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는 1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가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과 연계한 K-피쉬(FISH) 국내 소몰리 마켓으로 활용하자는 게 목포시의 주장이다.

특히 무안공항 무비자 입국에 따른 중국 관광객이 지난 2013년 2만4000명에서 2014년에는 3만2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어 요



우리의 구매력을 충족시키는 시장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호진 해양수산과장은 전남도청 수산유통과공과와 해양수산부 유통과공과를 잇따라 방문해 전남 명품 수산물 전시·판매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남도 주관 사업으로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홍보전시 판매관 설치에 필요한 2016년 소외 사업비 15억원 가운데 국비 7억5000만원과 도비 3억75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포=임영훈기자 lyc@

전남복지재단, 복지서비스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

전남 복지재단(이사장 노진영)은 오는 25일 전남 여성플라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내 시·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제공기관 관계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공인력의 업무추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올해 추진하게 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안내, 전자바우처 시스템 운영요령 등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남 복지재단은 올해부터 모든 사업의 결재방식이 회당 결제로 변경됨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 복지재단은 올해 3차례에 걸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재단은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제공되는 기간중 3~4월에 한차례씩 800여명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해 시범 추진한 설문결과(총 응답이 96%)와 사업의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4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워크숍을 추진하게 됐다.

목포 복지재단 관계자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제도 전달자인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존감 회복과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체감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목포복지재단, 소외계층에 1500만원 상당 위문품

목포 복지재단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목포 복지재단은 최근 시내 소외계층 115세대와 다문화가정 115세대, 사회복지시설 15곳, 그룹홈 7곳에 떡국(317상자), 라면(331상자), 김(331상자) 등 1535만여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홍률 시장과 이혁영 목포 복지재단 이사장(씨월드고속훼리(주) 회장), 이시들은 지난 11일 목포 경애원을 방문해 떡국과 라면, 김 등을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진>

목포 복지재단은 올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가급 조세 및 관리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자활과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복지 프로그램 발



굴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혁영 이사장은 "복지재단의 운영과 활성화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 지역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원문의(www.welfaremokpo.kr, 061-272-4337)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 원도심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무안 뽕탄 정수장 전경.



목포 버스터미널앞 저지대 상습침수 해소와 재해 방지를 위한 상동 초기 우수처리 시설 공사 현장.

2000만 원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